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eun LEE
편집	김상원	Editor	Donald C.W. KIM
발행호수	1658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8월 8일	Number	1658
	금요일	Date	Sept. 8, 1967: Fri.

미국의 우주자로 반출기도 발각 일본인 학자 체포구류

(의심은 9월6일발, 공동) 볼리모아의 후렌드실 공항에서 출국직전의 일본인학자가 미항공우주국 내의 중요자료들 "반출할 집"으로 신고한것이 세관의 조사로 발각, 문제가 되어있다. 의심은의 일본대사관의 이야기로는, 우주대학에 근무하고있던 하자마.이데후미씨(39세)로 뇌외과의 권위 학자도 2년반전에 메리랜드대학의 병원의 우주의학연구소연구원으로 도미, 미항공우주국의 위락 에의해서, 우주비행사가 대기권의틀 비행중, 뇌의 발는 영향에대해서 연구하고있었다. 이번 구라마 경유로 귀국하게되며, 1일밤 동종항으로부터 몬튼으로 향해 가족동반으로 출발직전, 세관에게 체포되었다. 용의는 관세법 위반으로, 본인과는 별도로 볼리모아항으로부터 일본에 향하는 배에 짐을 싣을 예정이었던 세계의 으름크를 "반출하는 집"이라고 신고한것이, 동항에서 조사하여보니, 미항공우주국 위락에의한 뇌연구의 생드론 사진 38매가 나혼외에 연구재료가 나왔기때문에, 동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후렌드실 공항에 연락이있서, 어위의 신고를 한 세관 위반으로 취급된것이다. 이사건에대해서 미항공우주국당국은 "이들의 자모는 기밀서류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항의할 의사는 없다" 라고 말하였다. 하자마씨는 체포후에, 원5백불의 보석금 으로 지시 석방되었다. 그리고 가족과같이 볼리모아의 모텔에 체재, 6일의 여신크 기대리코 있는데, 동기등은 확실치안라.

남비에트뎀 대통령선거 군부압승

(사이곤 9월5일발, 공동) 남비에트뎀대통령선거는 4일오전 쉐.반.우 국가지도위의장, 쉐.반.가오.기 수상은 군부후보들이 민간후보에 압도적인 차를 내고 당선하였다. 득표가 최중적으로 확정 되면 25일의 제헌의 회의에서의 확인을 받고, 쉐.반.우대통령, 쉐.반.가오.기 부대통령이 탄생 된다. 또 10월 22일의 하원의원선거가 닷나면, 작년 9월의 제헌의 회선거에 시작된 민정이권, 입헌정치에의 이행이 완성된다. 그러나 이번의 선거는 승리의 군부후보자신에대해서 큰 문제를 나타내코있다. 선거에서의 큰 놀라움은 쉐.진.쥬 동보의 이상한 진출상태이다. 찬.반.쉐.진 수상, 쉐.감.스 제헌의 회의장동 유력한 민간후보와 달라서, 쥬씨는 사이곤의 지식인으로부터 우송거리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정면으로부터 전쟁중결을 호소하고, 또 군부정부의 부패와 독재상을 심각하게 지피는 동우보의 연설은, 많은 연설 회에서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물론, 전국민공에는 이 후보의 이름조차 모르는 농민도 많았고, 쥬후보에 투표한것도 전체로보면, 소수 라고 할수있다.

(제2면에 계속)



(제 1편으로부터 계속)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전쟁의 종결을 원하고, 또 군의 독재에 고생하고있는 소박한 민중의 소리가 주류보에의 주도로 나타났다고 할수있다.

신대통령의 공약 실현가능 ?

주류지도위의장도, 선거권을 통해서, 민중의 명퇴에의 희망을 어느정도 이해하였다. 동의장 연설에서 "당선 되면, 미국에 복속정치를 요구하고, 아노이와 고섬할 의사가 있다" 라고 공약 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고섬이라는것은, 복속의 양보가 전제가 되어있으며, 이 제안에서 고섬이 전개될 예측은 거의 안보인다. 또 주의장은 키수상과같이, 부패한 고금군인의 추방동 행정의 개혁을 약속하고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실행될는지 의문하는 사람이 많다. 공약이 실현되지 않고, 민간정치가를 중심으로 불만이 표면화하는경우, 수도 사이곤에서 한.반.권주부가 군부우보를 소차이지만 압제하고 최고독표를 획득한것이 의미 깊게 될것이다.

정권내부에서의 대립을 우려

또 군부와 민간정치가의 대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키수상이 이데로 부대총명의 지휘에 만족하고있을지가 의문이며, 정권의 내부에서 대립이 표면화할 수버도있다. 이더한 형태이 든간에, 반정부기운이 높아지면, 신정부는 탄압으로서 이를 억제하지만으면 안될 형편에있으며, 신정권의 전도는 험악하다.

군인후보가 압승

이번의 남비에트남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 약5백80만명의 83%가 투표하고, 군인후보의 권.반.주 구.개.오.기 측의 득표율은 약 35%로, 차점 민간인후보들의 득표를 보이는것이였다.

신정부의 내각조직, 난항을 예상

심중한 마축의 평가

(와싱은 5일밤, 공동) 미국정부는 4일오우 남비에트남대통령선거에대해서, "비에트남국민이 스스로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큰 전진"이라고 환영하였는데, 넓은 기반에 손 조카에대해 서는, 난항을 각오하고있는 모양이다. 미정부는 주류지도위의장, 키수상의 군부우보의 당선이 3일오우 거의 확정적이였는데도 공식명령을 일찍 미하는 심중한 태도를 보였고, 4일오우에 처음으로 국무성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성명을 내었다.

높은 득표율에 만족

이성명은 손슨대통령, 라스크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것이라고하며, "미국과 기타 외국의 시찰단의 일리런 견해"로서 "선거는 전시상태와 비에트남의 방해속에서 극히 순조롭고 또 공정하게 거행되였다" 라고 말하고, 투표율이 83%에 도달한것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그러나, 주의장에 다음가는 득표를 얻은 주류보등이 선거의 부정과 무효를 내세우고있기때문에, 미정부는 내정 간섭의 인상을 줄것을 미하고, 선거의 공정을 직접 주장하지안고, 또 군인후보의 당선에대한 평가도 미한다는 심중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손슨대통령자신은, 83%의 고투표율에 만족하고 있으며, 선거전체로서 공정하였다는것에 확신을 표시하였다고 전하고있는데, 선거무효소오의 결말에 큰 관심을 가지고있는것은 확실하다.

남비에트남 증파의 미군대반이 전투부대

(사이곤 6일밤, 에이 피) 소식통에의하면, 래년초까지에 남비에트남에 증파되는 미군 4만5천명 내지 5만명중, 적어도 75%는 직접 전장에 나가는 전투부대가 될것이라고 보인다.

(제 2편으로부터 계속)

전우부대가 증강되는것이 결정된것은 (1) 과거 2년간 남비에트남에 파견된 미군의 만혼 부분이 기지건설을 위한 병문부대로서, 전우부대가 부족하였다. (2) 기지의 확장으로 전우부대를 증강 하는것이 가능하게되였다. 등에 의하는것이다. 미군의 증강은, 당초 래년7월경까지에 거행될 예정이였는데, 예정이 일찍이 다져져 3월 내지 4월까지에 거행될 가능성이 강하다. 증강부대는 20내지 그 이상의 대대에 편성될것이다. 중파부대중 육군제198정보병여단은 금년말까지에 남비에트남에 도착할 예정이다. 8월26일에 쫓난 동주현재의 남비에트남주류군병력은 46만 2천명, 이외에 타이국내의 기지, 광도기지, 응킹만상의 제7함대의 요원중 합계 6만9천명이 비에 트남전쟁에 참가하고있다.

손슨대통령, 와싱톤 시장에 흑인을 임명

(와싱은 6일밤, 에이 피) 손슨대통령은 6일, 흑인의 뉴욕시주립극장 윌라.와싱은시를 수도 와싱은시장에 임명하였다. 정시의 명의를 와싱은.코롬비야 특별지구장관이다. 여태까지 와싱은의 행정은 3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의해서 집행되어왔는데, 금주 한사람의 장관에의해서 시행되게되였다.

휘-드 자동차 회사서 파업 ?

(디트로이트 6일밤, 에이 피) 휘-드자동차회사와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은 6일오전, 디트로이트의 휘-드본사에서, 7일오전영시로 기한이 쫓나는 협정계약에 대치하는 신계약에대해서의 고섭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노동측과 고용측 사상방의 의견은 여전히 대립하고있으며, 7일오전 영시 까지에 고섭이 성립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따라서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의 계획대로, 7일오전 영시이후 휘-드자동차의 전종업원 15만9천명이 파업에 돌입할것은 불가미하다고 보인다. 6일오전의 고섭재개에 앞서, 전미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인 루사씨는 "파업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휘-드의 경영자가 태도를 변하여야한다. 그러나 현재 경영자가 태도를 변경할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미국, 8월의 취업인구, 역사상 최고

(와싱은 6일밤, 에이 피) 노동성의 발표에의하면, 전담의 취업인구는 7천6백40만명으로, 8월 로서는 역사상 최고로되였다. (한달사이의 최고는 금년 7월의 7천6백20만명) 한편 전담의 실업자는 2백94만2천명으로, 7월보다 30만8천명 적으며, 총노동력 (군을 제외한)의 3.8%로 되였다. 또 전담의 평균주간소득은 백3불5전으로 작년 8월보다 3불35전 더 높였다. 취업상태가 호조한것에대해서, 노동성은, 금년전반 정채상태였던 미국경제가 서서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하고있는것을 표시하고있다고 보고있다.

일본수상, 기자회견서 소신표명

(동경 2일밤, 공동) 사또수상은 2일오전 수상관에서 내외기자회견을 하고, 7일부러의 국부 방문을 개시토하는 동남아세아 역방의 목적, 11월방미에대한 생각, 내각개조에대해서, 소신을 표명하였다. 수상은 이 기자회견에서 (1) 동남아세아역방에서는 아세아의 평화와 번영에대해서 각국과의 사이에 이해를 깊게하겠다. (2) 국부방문의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의교방침을 번압 의사는 없다. (3) 남비에트남방문은 내 눈으로 심정을 보고, 동국의 지도자와 비에트남혁명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는것이 목적이며, 남비에트남정부를 격려하든가,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가는것은 아니다.

(제3면으로부터 계속)

(4) 밤미시에는 비에드넬회평, 오기나와, 오가사와라 시정 권변 원에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 구상은 아직 없다. 안보보장과 오기나와복귀의 조정이 곤란한 문제인데, 건설적으로 타협할 예정이다. (5) 밤미후에 내각개조를 할것지에대해서는 아직 생각치안모이다. 동의 여러점을 명백히하였다.

오기나와 문제와 안보체제

또 수상은 오기나와와 안보문제의 관련을 강조하고, "일본의 범영은 일.미 안보체제에의한것이며, 이것을 변할 생각은 없다" 라고 말하고, 안보체제하의 오기나와문제해결의 곤란함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최선이 안된다면, 두번째의 선택을 취한다" 라는 말에도 표시되고있는데, 이들 수상의 발언을 종합하면, (1) 한번에 오기나와 반환을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진전시킨다. (2) 그경우, 일.미 안보조약에의한 일본본도의 기지보다는 미군에게 편리한 형태의 기지를 오기나와에두어도 조라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시사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핵이 붙은 반환인가, 핵이 붙지않은 자유사용인가는 "지금부터 생각하겠다" 라고 말하고 방향을 보이지 않았다. 수상의 발언을 드른 인상으로는, 핵을 붙인 반환, 기지의 자유사용을 인정한 다음에의 반환, 기지를 본도에도에서의 반환등, 여러가지로 생각되고있다. 반환방식에대해서는, 그때 그때의 정세에 따라 방식에 시기를 마쳐서 방책을 생각하는것으로 보인다.

인사소식

본래평양주보사 주필 김창원씨는 오기나와의 미공군기지에 신속될 군인가족속사설계를 위해 하와이의 큰 설계회사중역 3명 미까지, 지난 8월22일에 킷캄비행장을 떠나, 오기나와에 향해 일주일간 체류 현지 시찰후, 지난 30일에 귀향하였다고한다.

예보한바와같이, 풍지 회중앙부리사장이신 리정근씨는 심한 복통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시내 쿠아키니병원에 입원치료하고, 자택에서 정양중인데, 그래도 복통이 "근지지만아, 철저한 신체 검사를 한결과, 담낭 돌출물이 복통의 근원이라는것이 판명되며, 오는 14일경 쿠아키니병원에 입원수술하실것이라고한다. 리정근씨의 완치 회복을 일반은 기원하고있다.

그 안경선씨의 부인 안결희여사는 수주일전부터 신체건강이 불진하여, 본항 가이샤병원에 입원 수주일간 정양하는중, 엑스레이등으로 검사를 원천히 하였으나, 아무 병이 없었기때문에, 지난 8월 28일 무사히 귀가하셨다고하는데, 음식에 주의하라는 의사의 조언을 들었다고한다.

본항 스킨스트리트에 있는 한인양로원에서 여러해동안 정양중이시던 리성수씨는 원판다리가 있어 지난 8월중순에 세인트.루렌시스병원에 입원 수술을 하고 병근의 피줄을 잘라냈는데, 그후 독기가 퍼져, 작업에 원판 다리를 잘라내고 치료중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다. 리성수씨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생명에 별일 업시 원차 퇴원하시기를 일만 치지는 기원고대하고 있다고한다.

한국정부의 법무장관 권오병씨는 미국무성의 초청으로 미국각지를 15일간 시찰여행을 마치고 귀국차, 지난 9월3일에 기항, 하와를 오항에서 휴시하시후 5일정도에 한국으로 향해 출발하였다.

절대한민국 의국각지의 대사였으며, 의무장관을 지내신 최덕신 장관은 의국관 생활을 떠나서, 귀국하시는 도중, 지난 9월 4일 오전 10시반에 기항 익일 정오에 가족을 동반하고 귀국하셨다.

一九六七年 동지회 호상부원 사망록

3월 1일	권 수 경	431	4월 25일	리 준 상	436
3월 7일	리 상 중	432	8월 1일	최 백 열	437
3월 17일	김 노 득	433	8월 18일	리 명 성	438
4월 10일	최 대 선	434	8월 20일	김 재 선	439
4월 12일	현 경 운	435			

상업광고

조필꽃전방

PHIL'S FLORIST SHOP

결혼식에 필요한 꽃다발, 묘사지 그리고 아름다운 화환 장례식이나 병원심방, 손님 봉별 영접에 필요한 화환, 레이, 꽃 바구니 미국본토나 한국에 보내시는 꽃은 항공수송을 위한 특별포장도 하며,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 각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는 201 남.비니아드.거리 (센트럴.인터미디엇.스쿨 마진편의 4층 세멘트 건물 1층에 있음)

201 So. Vineyard Street, Honolulu Telephone-----501-976

보스윅 장의소

BORTHWICK MORTUARY, LTD.

1330 Maunakea Street Honolulu, Hawaii Telephone 513-566

본 장의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특별히 봉지 퇴오상부원과 또한 한인에게 가장 특별한 서비스들을 하여왔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봉사하여갈 터입니다. 호노룰루 중심지에 장의소를 가지고있기때문에 모든 교통에 편리하며, 숙련한 장의사가 주야를 가리지안코, 또 원근을 관세치안코, 제반 수속을 다 해드리코 봉사해드립니다. 미스터 양의 사택 전 화번호는 94177

시티뱅크 어브 호노룰루

CITY BANK OF HONOLULU

여러분의 편리를 도울기 위하여, 시티.뱅크에서는 한국은행과 계약을 맺고, 직접 한국으로 돈을 부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서울본점과 부산 지점, 그리고 여러 지점으로도 돈을 부칠수있사오니, 만히 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티.뱅크는 핀.스트리트과 리차드.스트리트 모퉁이에 최근대식 대건물을 신축하고, 여러분의 각종은행사무와 손금의 편리를 도울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60-811이며, 문의하실 일이 있사시면, 한국말로 친절히 대해줄 오건창씨에게 연락하십시오. 오씨의 사무실 전화는 963-111입니다.